

산수사리

큐레토

리얼리즘

ver.2

김보경, 박태인, 윤태준, 최아얀

큐레토



리얼리즘

# 산수싸리 & 프로그램 소개

산수싸리는 2019년 여름 광주 동구에 위치한 산수시장 내에 문을 열었다. 일과 삶의 대안적 형태에 관한 막연한 고민을 기점으로 주체적인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개인의 자유와 존중이 보장된 공간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일, 내재된 것을 탐색하고 표출하는 일에 언제나 힘을 싣는다고 믿는다.

올해 진행한 시각예술기획자  
협업프로젝트 <큐레토-  
리얼리즘ver.2>는 광주 미술현장의  
빈약한 독립적 기획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했다.  
근래 들어 새로이 두각을 보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나 광주  
소재의 미술대학이나 유관기관의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주체적인 창작,  
기획의 생태는 미약한 현실이다. 손에  
꼽히도록 활동 인구는 적은 반면 지역  
기획자들의 네트워크마저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다.

산수싸리는 광주 미술현장의 생태계  
활성화에 씨앗이 될 다양한 활동가군의  
형성과 더불어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한 동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가능한 선의 활동 기반을 제공하며  
함께 할 기획자들을 공개모집했고  
운영자 포함 총 다섯 명의 기획자가  
모였다. 예술이론 세미나를 시작으로  
포트폴리오 제작 워크숍 ‘연락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진행, 각  
참여자 기획의 결과물 제작까지  
따로 또 함께했다. 개성이 뚜렷한  
참여기획자들이 가진 역량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로 기대보다 더욱 완성도  
있는 결과물들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계에 막연히 부유하는  
언어이자 행위로써의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다시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단순 완결을 넘어 최초  
기획취지와 목표에 관한 보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기존에 계획했던 3개월의 프로젝트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와 여름철 폭우로 인하여 반복되는 연기, 취소로 결국은 약 7개월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다사다난한 상황 속 여러 책임과 부담을 수반했음에도 계획했던 일정들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융통성과 임기응변을 발휘해주신 김보경, 박태인, 윤태준, 최하얀 기획자님에게 진득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모로 좌충우돌식 전진 중인 산수싸리와 함께 해주신, 또 함께 할 분들의 따듯한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수싸기

# 큐레토

## 리얼리즘 ver.2

4

5	참여자 소개
7	이론세미나
29	연락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개별 프로젝트
36	언드리셔스 롤플레이(Undelicious Roleplay) 김보경
46	살아있는 시체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박태인
58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윤태준
66	1950년대 아프레걸 : 나의 할머니 최하얀
78	프로그램 참여 소회

# 창의적 디자인 소개

김보경

박태인

윤태준

최하얀

김보경

Bo Gyung Kim

---

광주에 기반을 둔 기획자, 연구자,  
구직자입니다.

실천적 형태의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예술작업, 그리고  
작업 과정과 작업자의 철학과 태도에  
관심을 가지며, 현대예술과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궁금증을 갖고 연구합니다.

현대 사회와 예술의 연결되는 방식을  
고민하며, 이로 개념과 실천, 과정,  
토론, 발전행보 등에 집중 합니다.

최근의 주요 리서치 키워드는 ‘공간’과  
‘대안’, 그리고 ‘실천’입니다. 공간의  
연출 된 구성과 형태, 그리고 그에  
따라 유도할 수 있는 심리와 행동들에  
대한 교육(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의  
폭넓은 접근에 시도를 해보고자하며  
변화를 위해 지식의 습득만이 아닌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서의  
접근(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b.1993 Gwangju, South Korea

Lives and works in Gwangju

Contact : bgpuppy@naver.com

Website : kimbogyung.wordpress.com

## 박태인

---

연구원, 기획자, 비평가.

2017년도부터 광주에 기반을 둔 공간 <바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는 것을 연구하고 독해하는 것에 더욱 흥미를 가진다.

산수짜리 <큐레토-리얼리즘 ver.2>에서는 ‘살아있는 시체의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제작했고, 최근 <제로의 예술>이라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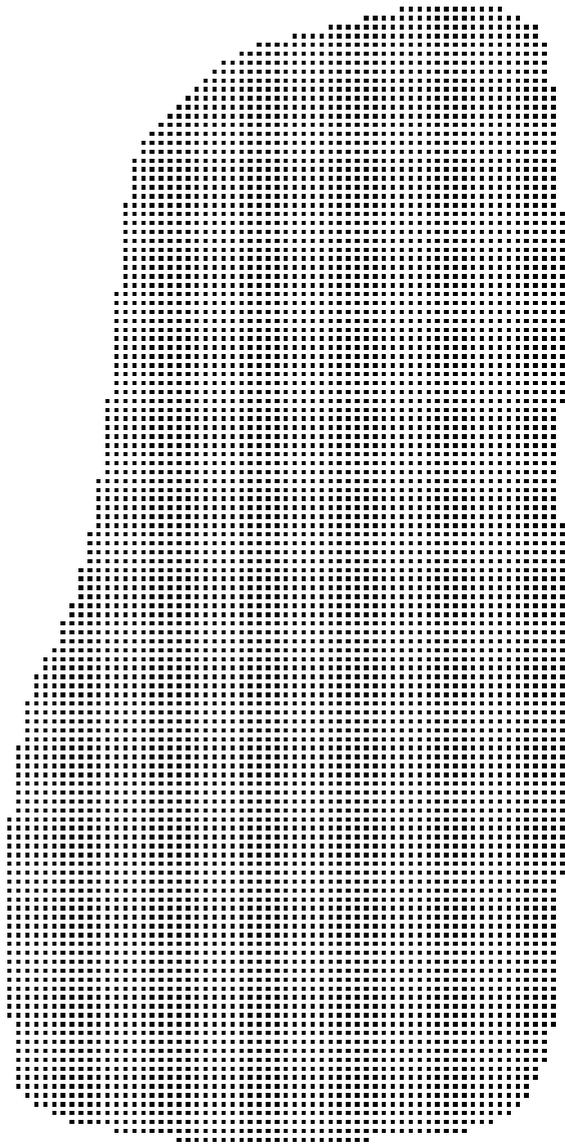
## 윤택준

1987년생으로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각 이미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다. 신체기관이 인지하는 감각을 통해 특정한 물성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한다. 동시에 사진 매체가 사물을 복제하는 속성을 이용해 물성과 감각을 시각적 표현으로 제시한다. 현실을 표방한 사진의 신기루와 현실 세계의 명징함을 결부시켜 작업으로 생산하고 있다.

## 최하얀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독립기획자로 활동 중인 최하얀입니다.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으나 대학교 진학을 위해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으로 이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의 거주지가 된 광주의 도시적 특성에 주목하며 녁마주이, 성매매여성, 여성공장노동자로 대변되는 사회적 배제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전시의 형태로 이끌어오는 전시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 2 | 서 | 기 | 모 | 노 | 타  
L



개별 발제

# 메타유니버스\_

## 2000년대 한국미술의 세대, 지역, 공간, 매체, 2015

김보경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또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미술의 배경이 된 여러 예술사회적 조건들을 네 개의 소주제, 아홉명의 글쓴이, 열세편의 원고로 다루어 다중우주와 같이 메타유니버스로 분화하여 살펴본 책입니다. 그 중 남웅 비평가의 ‘안녕한 듯, 안녕하지 않은, 안녕한 것 같은, 안녕들하십니까?’ 원고 1 ~ 5까지를 다루었습니다.

한국미술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글이자, 서술되어있는 한국미술의 변화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의 끝이 느껴지는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선택하였습니다.

<큐레토-리얼리즘> 프로젝트 참여 기획자들의 그간 세미나의 참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키워드는 ‘동시대’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대 ‘지역’, ‘전시공간’, ‘자유’, ‘정치’, ‘젠더’ 등 현재 경험되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 맥락을 지켜봐오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어딘가 벽에 다다른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금, 지난 2000년대 초기의 한국미술을 다시 짚어보며 현재 나와 참여자들은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음 발디딤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글을 읽으며 주관적으로 짚어본 키워드입니다.

## 소비문화

### 1.

도시 문화적 가치와 지가를 상향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의도적 젠트리피케이션

- 미술관의 랜드마크화

### 2.

수입담론과 소통매체와 채널의 변화

### 3.

(1) SHARE : 협동조합, 사회적 업체,  
콜라보레이션 (공유경제, 공동스튜디오,  
공동작업)

(2) 한국형 스타일의 데이터

### 4.

(1) 과거의 시간성-'실체' 존재?

: 추상화된 이미지, 스타일링된 이미지 향유  
→유령적 시간성에 반복적 귀환하는 것일 뿐  
- 역사적(or 국가적?국가성?민족적?민족성?)

노스텔지어에 대한 소비

(2) 소비코드를 무시함으로써 모든 것에  
소비가능성을 매긴다.

-힙스터공동체(자생적 시장 공동체)

\*재미로 읽기 : 전시 <색맹의 섬>

도록\_김해주, 게오르그 짐멜, 2019

발제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었으나  
어쩌면 앞의 메타유니버스 다음의  
후속 내용으로 읽어보면 좋겠다 하던  
내용인 전시 <색맹의 섬(The Island  
of the Colorblind)> 도록의 기획자  
글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올리버 색스가 쓴 여행기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소수의  
색맹(色盲) 인구와 다수의 정상  
색각(色覺) 인구가 함께 살며 상호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환경까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핀지랩에 대한  
색스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전시 <색맹의 섬>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자  
주제를 8팀의 작가들로 구성해 공존을  
위한 공감과 생태적 사고를 주로  
다룹니다.

글은 전시의 기능과 큐레토리얼적  
접근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9년에 이루어진 전시로,  
메타유니버스 이후 2019년과,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에서  
'공존', '공감', 그리고 '생태적 사고'를  
이야기 하는건 세 시기 모두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연상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발제 코멘트 ①

박태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타적인 시선으로 한국 예술계를 바라본 것은 의미 있지만, 매우 당시 시기에만 정확한 글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 세미나가 진행되던 시기에서 이 글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독해되는 점이 흥미로웠다.

결국 장소성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시대적 고민은 사실 트렌드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 과거와 지금을 돌아볼 때, 무척 이상한 감각으로 다가왔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젠트리피케이션은 거대한 재앙처럼 사회를 휩쓸 것 같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총위로 내려 앉아버린 느낌을 받는다. 장소성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전시들도 유사한 느낌으로 자리하고 있다.

10 한편으로 이것은 한국 예술씬,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 물론 한국 예술씬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논의해볼 영역까지 확장 가능한가 싶지만- 진행된 탐구인 것이기 때문에 서울 특유의 엄청난 속도감으로 해당 문제를 지나쳐버린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장소 중심의 전시, 작품, 리서치는 어떤 의미로는 낡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깊은 의미로 확장가능한 결과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메타 유니버스에서 많은 부분은 당시 미술계를 회고하는 특이점에 대한 기록으로 변형 된 것 같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들을 제외하고 지적된 레트로의 유행이나 하위 문화의 흡수와 같은 일은 장소성과 같이 오늘날의 트렌드로 흡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의 트렌드를 혹은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넘어서서 트렌드, 경향이라는 것이 삭제되는 지점이 이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들기도 한다.

## 발제 코멘트 ②

윤태준

전체적인 감상평으로는 지역(서울)에 국한된 일련의 지형도를 자신의 문제로 적절하게 해석한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 해석의 논지를 하나로 끌고가기 위해, 몇가지의 상황을 몽똥그려 비평한 것처럼 읽혔다. 다만 이러한 문체의 비평을 바탕으로 발제를 해야될지 조금은 난감했다. 흡사 다발라먹은 고등어 다시 발라먹어야하는 느낌이었다.

먼저 '수입된 담론이 동시대 청년세대 및 작가들에게 자신이 밟고 있는 삶의 토양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적 자양분이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 되었다고 라고 했다. 또한 SNS 환경에서는 이슈에 대한 코멘트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이러한 현상이 수많은 형태로 재생산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대의 분열적 이슈 생산은 어떤 건강한 담론을 생산하고, 동시대를 진단 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레트로 문화의 선택 현상에 대해서 빈곤한 경제력에서 비롯된 구제 소비 문화와 결부지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동시대라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고 이전의 것을 가져오는 형태를 일종의 모더니즘의 귀환으로 명명하고 있다. 즉, 콘텐츠의 스타일만 가져와 표면만 복제하는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문화로 나가기전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판단된다. 문화 생산의 개인 주체들과 단체, 자본의 흐름이 이전과는 다른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몇가지의 집중된 형태(영화, TV 등)의 콘텐츠에서 파편화된 소비매체(유튜브, 커뮤니티, SNS)로 이행중이다. 이로인해 개인이 주체가되는 콘텐츠의 생산이 가속화되고 저변이 발달함에 따라, 당장 껍데기를 입힐 콘텐츠의 스타일이 필요함이 과거콘텐츠의 회귀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성을 가진다기 보다는 현재의 파편화된 다수의 소비매체에서 이해되고 통용되는 그것만의 스타일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힙스터를 일종의 문화 생산자, 창작자의 포지션으로 두고 동시대의 콘텐츠 생산의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설정했다. 필자가 견지한 힙스터의 생활양식은 ‘종속 위에 확보된 자율성’이라 언급하고 있는데 노동을 놀이화로서 전유하는 생활양식, 콘텐츠의 생산 양태는 지극히 동의한다. 한병철 작가의 피로사회에서 언급한 ‘스스로를 착취하는 현대인’의 개념을 유사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단 힙스터로 칭하는 20-30대의 주변부의 집단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이라고 생각된다.

## 발제 코멘트 ③

### <청년 작가의 지형도>

최하얀

책의 내용 중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대목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다.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어떤 계기를 통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나는 올해 광주 및 전남에서 활동 중인 청년 작가들의 비평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들의 작업실을 일일이 방문해 보기로 했다. 갓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초중반의 나이서부터 30대 이전까지. 아직 ‘청년작가’라는 이름 안에 묶이기에 다소 이르게 느껴질 만큼, 그들은 나와 같이 어렸다.

6명의 작가 중에서 재학 중인 2명은 학교의 작업실을 사용 중이었고, 2명은 미술단체의 지원을 받아 좋은 조건으로 대여 가능한 작업실에 있었으며, 한 명은 몇 년을 유지해오던 작업실 겸 공방의 계약이 최근 끝났다는 말을 했다. 나머지 한 명은 함께 졸업한 동기 4명이서 사무실로 쓰이던 공간을 월세 형태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작가의 작업실로 가는 계단을 굽이굽이 밟아 올라가며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법이 규정한 청년작가’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은 손쉽게 취사선택 가능하고, 적당한 명목을 위해 가볍게 이용되며, 사용이 끝난 후에는 쉬이 내쳐진다.

# 타락한 저항 : 지배하는 피해자들, 우리 안의 반지성주의

박태인

<타락한 저항>은 노무현을 지나, 이명박-근혜를 건넌 한국 사회 전반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사회 상황을 메타적으로 관찰하고 비평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라영은 트럼프 당선을 비취지는 미국 사회를 평행선 삼아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반-지성주의에 대해 탐색한다.

14 그럼으로 이 책은 그 내용만의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시기를 함께 독해해야만 하고, 스스로가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있는 시점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산수짜리 <큐레토-리얼리즘 ver.2>를 준비하면서 이론 세미나로 함께 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의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반지성주의, 타락한 저항이란 거대한 대의들을 위해서 작은 잘못들에 눈을 감는 행태에 대한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저항하고 비판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여성을 혐오하는 민중 미술과 나꼼수의 언론 플레이들과 같은 것을 얘기한다.

“우리는 옳은 것과 쉬운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 해리포터와 불의 잔

---

그럼으로 이 비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수행한 많은 커뮤니티, 단체, 기관에 대해서 추척하게 되기도 한다. 진보 정치인으로 각광받던 안희정, 박원순 등의 성착취 행태, 대안 공간 내에서 발생했던 여러 미투 사건들. 사실 지금까지 미투 사건도 어떤 개인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렇게 내놓고 성차별적인 이들과는 다소 구별이 되는 듯 보이며, 나름 세련되고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지만 거부장적 질서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교양 있는’ 마초도 있다.”  
<타락한 저항> p.77

한편, <타락한 저항>에서 이어 지적한 ‘교양있는 마초’에 대해, 2019년 11월 광주에서 진행된 여성예술인연대(AWA), 페미플로어,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가 함께한 <예술계 내 행동강령>을 생각하게 한다. 예술계에서 성평등 인식의 개선과 성평등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강령에서 이 ‘교양있는 마초’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면모로서 등장했다. 너는 여성이니까, 너는 힘이 없고, 이 기술을

잘 모르니까 매너와 교양이라는 이름의 아래에 깔려 있는 차별과 무시는 투명한 차별보다 은밀하고 위험하다.

이 은밀하고 위험한 것에 대항해 몇년 전부터 부각된 격렬한 적의는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사람들은 일베보다 메갈리아를 받아들이기 더욱 힘들어했다. 일베는 익숙한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곳에서 발생한 신조어들이 자주 밈으로 유행되었지만, 메갈리아에서 벌인 미러링에 대해서는 주홍글씨처럼 여긴 지난 몇년을 기억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이슈를 진보적으로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감히 어디서?’ 라는 태도를 견지하던 모든 ‘교양있는 마초’ 들에게 날린 어퍼컷인 셈이다.

“혐오 표현이 취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상대가 선택할 수 없는 정체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취향이 존중받는다든 것은 ‘개인’으로 존중받는다든 뜻이다.”  
<타락한 저항> p.176

그러나 <타락한 저항>에서 언급된 약자 멸시, 일상의 혐오와 같은 반지성의 태도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런식의 태도는 사상과

가치관에 비롯된 것일텐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지 모른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책의 결말부에 이르러 예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과도해보기도 한다. 공고한 삶 속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예술이 가진 막강한 힘이라는 것에 공감함에도 지적한 문제가 무척 크고 뿌리 깊은 것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럼으로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예술인으로서 해야하는 책무에 대해서 생각한다. <타락한 저항>의 마지막 장 일부를 마저 소개한다.

“사회의 야만은 약자 멸시에 담겨 있다. 지성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향해 치밀한 관심을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립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되, 현실에 참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참여하되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 호프스태터가 말했듯이 “지식인은 양가주망, 즉 맹세하고, 책임지고, 참여한다.” 곧 고립과 참여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실행하는 그 ‘불안정한’ 과정이 풍성한 지성의 숲을 이루지 않을까.”  
<타락한 저항> p.196

## 발제 코멘트 ①

### 솔직한 '표현'의 '자유': 표현은 누구에게 도착하는가

김보경

2016년 3월 인공지능 테이가 트위터에서 활동하다 하루 만에  
중지되었다. 테이는 히틀러가 옳고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배운 언어는 차별적인  
발언과 잘못된 정보들이었다...기술의 진보는 그 자체로 거부의  
대상이 아니다. 기술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미디어는  
기술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내적인 언어는 다양하지 않다. 발화의  
주인은 여전히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다...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 중 "나는 당신들의 목소리"라는  
말을 했다...솔직함은 곧 순수가 되고 선이 되지만 위선은 믿을 수  
없는 이중성으로 낙인찍힌다...힐러리는 위선적인 거짓말쟁이지만  
16 장재인 기자를 조롱하거나 멕시코 혐오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는  
솔직한 인간이다. 자유와 솔직함을 향한 극단적 찬양은 권력의  
횡포마저 자유롭고 솔직하게 만든다...차별적 표현에 '자유'개념을  
덧입히는 이들의 관심은 표현의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다...오늘날  
'표현의 자유'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패로 악용되며, 차별의  
가해자들은 비판 앞에서 억압받는 피해자로 분할 수 있게 되었다.  
혐오할 자유가 저항할 권리를 압도하는 순간 차별은 문화가 된다.



참여자들이 가져온 텍스트들에서 주목하게 된 주목하게 된 문구들을 발췌해 모아 보았습니다. 글에 대해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는 것은 각자의 고민과 대입되어 다양한 해석을 볼 수 있지만, 그전에 그 글을 선택한 참여자와 그것을 읽고 밑줄과 타이핑까지 하게 된 내용을 시간이 지나 다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는 것에서 이미 코멘트는 나와있을지도 모릅니다.

## 발제 코멘트 ②

윤태준

차별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현시대의 한국인의 영역구분짓기의 다양한 행태(진지 충, 정치적 올바름, 소수자 혐오, 여성혐오, SNS 불링)를 통해 현시대 꼬여버린 한국 남성성에 대해서 고찰하는 일종의 비평서와 같은 텍스트였다. 인터넷뉴스 기사발행 형태와 낮은 퀄리티의 콘텐츠 생산 등과 맞물린 SNS의 선택적인 정보만을 취득하는 단편적인 소통방식을 중점으로 비평을 이어가는 가고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상을 해석하는 참신한 측면을 일부 제공 했지만 트위터와 웹 커뮤니티 문화의 형태를 전반적인 현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 개인적으로 22-23페이지의 조선시대부터의 역사, 근대의 민주화운동을 고찰하며 동시대의 뒤틀린 남성성을 고찰하는 부분은 공감이 되었다. 다만, 여러 요소들이 파편적, 단편적인 예시만으로 제시되고 이러한 감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없어서 알맹이없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을 먼저 제시하고 일련의 현상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는 논리적 전개를 선호하는 편이라, 파편화되어 일관된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감정 혹은 SNS와 같은 흐름에 너무 의존한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사회의 뒤틀린 남성성은 그들이 학습받은 '대결구도'라는 지점과 맞물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대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북한과의 대결과 대부분의 한국남성이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체화한 정치적, 개인적 체험과 깊게 연관이 되어있다고 판단된다. '군대'에서의 체화된 경험은 '피해의식'이라는 강렬한 감정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대중문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으로 재생산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발제 코멘트 ③

### <혐오 세대>

최하얀

1. 책을 읽어나가며 화자가 말하는 ‘SNS나 특정 사이트의 익명성을 통해 타자를 배제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를 함부로 발화하는 세대’가 이 한국 사회의 어디에서 자라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의 끝자락과 2000년대의 시작을 지나온 내가 흐릿하게나마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 우리 8090세대들은 위성통신망과 이동기술의 발달에 따른 소위 ‘지구촌’ 시대를 지나온 세대다. 우리는 이제 너와 나의 다름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타자를 있는 그대로, 다름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이에 반하기라도 하듯 타인, 이성, 타민족, 타종교, 타지역 등 개인의 썸 속에 썸해지지 않는 대상들에 대한 혐오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리 안에는 IMF를 겪은 부모세대의 상실감, 그리고 타인을 배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서만 불투명한 나라는 인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인정욕구가 기묘하게 버무려져있다.

18

사람은 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해야할까? 하고 스스로에 물었다. 이는 묻는 일 자체를 잊어도 괜찮을 만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다. 나보다 약한 이를 배려하고, 그들을 모두 꺼들고 꺼안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인간의 본성’임과 동시에 지향해야 할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인간의 마땅한 본성이 나보다 약한 개체를 잡아먹고 제 스스로 융성해지는 것에 있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결국 우리들이 썸 안에 속하지 않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개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그만큼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희뿌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가시적인 계급제도가 붕괴한 이후 지배자들이 민중 사이에 갈등과 혼란, 서로를 향한 혐오를 불어넣음으로 민중들을 단일할 수 없게 하고, 결단할 수 없게 함으로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일은 아주 오래된 정치적 방법이다.

# 1. 새로움에 대하여 / 보리스 그로이스

윤태준

동시대 광주의 문화는 자가복제하는 역사에서 탈피하여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가? 새로움은 모든 전통을 비롯한 선입견, 해방, 합리적인 규제를 파괴하고 형식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요구받는다. 진정성, 순수한 이성, 영감, 자연, 욕망 혹은 비언어적인 특정한 생산물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 전통의 틀을 부수고 재정의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타자의 것을 가져와 새로움을 위한 재료로서 사용될 수 밖에 없는가?

타자의 것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움은 자기 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새로움을 위한 자기 망각은 외부문화의 타자성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전통이란 형태의 대척점에서 있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현상으로 타임라인에 바깥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의 새로움은 전통과의 대결을 통해 스스로 타자화되었다. 그로 인해 새로움은 전통에 반대되며 대결하는 파괴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자멸하였다. 전통과 반대되는 타자화된 새로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한 문화에서

전통이란 지금 이전의 역사를 아카이브한 것이다. 분류와 구조화를 통해 전통으로서의 아카이브에 소장될만한 문화적 작품들과 그와 결합되는 유행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통해 전통은 새롭게 재조직되며 도서관, 미술관, 필름 저장소 같은 아카이브에 소장될만한 가치를 가진 특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새로움을 포괄하여 동시대의 문화를 주도한다. 쉬운 선택과 배제를 통해 새로움을 걸러내고, 전통을 유지한다.

새로움을 위한 흐름은 아카이브를 통해 인정되고 통용되는 문법을 파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전통의 아카이브를 다시 재조직하거나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파괴하고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전통의 아카이브와 새로움을 분절된 어떠한 것으로 다뤄야 한다. 거대한 아카이브에 매몰되지 않고, 포섭되지 않는 타임라인의 바깥에 존재하는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움은 아카이브의 타임라인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스크린의 추방자 / 히토 슈타이얼

동시대 이미지는 손쉽고 빠르고 배포되고 유포된다. 디지털 이미지가 가진 일종의 특성이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동시대의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하기 보다는 생산된 이미지를 변용하고, 왜곡하며 자가복제를 통해 새로움을 형성한다. 일종의 공회전과도 같은 동시대 이미지 생산의 원리는 디지털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디지털의 공간에서는 어떤 것이든 복제되고, 데이터화되며 변용가능한 어떠한 대상으로 치환될 수 있다.

20 이미지의 운명은 디지털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빨려들 어간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움직이고 노동하며, 소비 가치가 없는 무엇으로 생산한다. 또한 사진 이미지는 다시 데이터화되어 쓸모없는 데이터로 소비될 것이다. 이미지는 더는 새로움을 취하지 못하며, 파편화된 대상으로 쪼개지고 재조합될 것이다. 광학적 기계장치로 기록되는 이미지의 시대는 점점 멀어져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의 한가운데 닳을 내리고 정박할 수 있는가? 휩쓸려가는 디지털의 광대한 파도에 적응해야 하는 운명일지도 모른다. 데이터로 치환되는 사진 이미지라는 더는 다름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 속에 자연히 감춰진 대상에 집중하고, 이미지가 표상하는 현실의 단단함을 관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발제 코멘트 ①

김보경

### 보리스 그로이스 ‘새로움에 대하여’

문화는 여전히 특정한 차이점을 새롭고 중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그와’다른 차이점을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 미술관, 필름 저장소 같은 아카이브에 소장될 특정한 문화적 작품들의 선택과 그와 결합되는 유행, 사회적 성공, 특권과 같은 현상들의 문제가 생겨난다.

### 히토슈타이얼 ‘스크린의 추방자들’

20, 30년 전 시작된 매체 제작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은 일련의 비상업적 이미지가 서서히 망각되도록 전개되었고, 오늘날 실험 영화나 에세이 영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화들이 영화관에 범접 못할 수준으로 유통과 배급에 드는 비용이 비싸짐과 동시에 방송을 타기에도 지나치게 주변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영화들은 영화관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영상 에세이와 실험영화는 대부분의 관객에게 노출되지 않은 채 대도시 미술관이나 시네마테크의 희귀한 상영회에서 한 번 째 원본 영사되고, 다시 아카이브의 어둠 속으로 칩잡한다.

## 발제 코멘트 ②

박태인

### 1.보리스 그로이스 ‘새로움에 대하여’

미술사를 들춰보면, 미술사는 항상 지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어나왔다. 대표적인 예가 인상주의, 바로크, 다다이즘이겠다. 이러한 요소는 대체로 문화 외적인 영향에 대한 것과 맞물려서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새로움이라는 있는 것인가? 보이스 그로이스의 ‘새로움에 대하여’는 사실 지금까지 이어진 역사 속에서 발견된 새로움이 더이상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재인식 하고, 그렇다면 새로움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해보려는 시도다.

새로움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광주에 존재하는 많은 해외 레지던시와 비엔날레를 떠올린다. 지역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주입하기 위한 많은 해외 교류는 다시금 비판받았다.

한정된 기간동안 지역에 대한 깊은 탐구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순히 지역을 식민화하는 작업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음의 비판은 새로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 2.히토슈타이얼 ‘스크린의 추방자들’

이미지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조명하는 글에서 미디어 아트가 자본주의에 완전히 통합되고 유통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야한다. 사실 미디어, 기술, 이미지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하는 걸까.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지는 순식간에 왜곡되고 변형되어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 사실마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지는 이제 유희에 가까운 것인지 무언가를 고발하는 기능을 잃었다.

광주는 빛의 도시,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올해도 열려 광주 시가지 곳곳에 거대한 스크린과 조형물이 설치되어 번쩍이고 있다. 미디어 아트가 이와 같은 층위로 소비될 때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거대한 규모를 요구한다. 상업적인 요인으로 거대해진 이미지는 쉽게 그것이 담고 있는 서사를 단순화 시킨다. 단순화된 서사는 다시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변모시킨다. 이미지는 그것이 아무리 평면에 담긴다 하더라도 알팍해져서는 안된다.

### 발제 코멘트 ③

최하얀

#### <내가 이겼다!>

‘이미지’는 권력이다. 누가, 어떻게, 원하는 이미지를 더 폭 넓고 간단하면서도 빠르고 손쉬운 방법으로 퍼트릴 수 있는가는 승리의 척도가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11시55분 트위터에 “내가 선거에서 이겼다!”(I WON THE ELECTION!)는 글을 업로드 했다. 이에 트위터 측은 해당 게시물에 "공식 소식들은 선거 결과를 다르게 집계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덧붙였다. 꽤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트위터 측에서 직접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SNS 게시물에 담긴 주장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사실 그가 이 트윗을 업로드 할 당시 그는 이미 본인의 패배를 직감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그는 전날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겼다”라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이겼음을 인정하는 듯 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따라서 그가 ‘진실로’ 이번 선거에 자신의 승리를 직감하여 앞선 트윗을 올렸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글을 업로드 했던 것일까?

트럼프의 ‘발언’은 곧 권력이다.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해 있던 기간 동안 트위터를 그의 훌륭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왔다. 그의 주장은 공인 인증된 계정과 간결한 문장이라는 복합적이고도 단편적인 이미지로 편집되어 대중들에게 손쉽게 전달됐다. 그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한다 해도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의해 가볍게 편집되어 재생산되는 과정은 그의 주장에 무형의 힘을 부여한다. 이미지는 권력이다.

## 벵어리들의 不和

최하얀

루마니아 태생의 작가 게오르규(1916-1992)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수병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시인의 임무는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다’고. 당시 독일 수병은 산소와 압력에 매우 민감한 토끼를 잠수함 내 하부에 두고 이상반응이 있는지를 지켜봄으로 환경변화를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한다. 고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토끼’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주변에 알리는 경종의 역할을 하는 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심해 속 잠수함의 가장 아래 위치한 토끼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 바로 절대다수와 더 큰 논리를 위해 제물로 희생되고 죽어가야 했던 소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인’이라는 직업을 우리의 편리에 맞추어 다른 것으로 대입해 볼 수 있다. 이 혼탁한 세상 속 ‘작가’의 임무는 무엇일까. ‘작품’의 임무는, 더 나아가서 ‘전시기획자’의 임무는, 심지어는 ‘인간’의 임무까지도.

나는 이번 발제에서 자크 랑시에르의 『불화』(1995)와 나도향의 소설 『벵어리 삼룡이』(1925)를 연계해 읽어볼 것을 제안했다. 『벵어리 삼룡이』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벵어리 난쟁이 삼룡이가 등장한다. 소설은 평생을 바쳐 주인집의 가장 충실한 종으로 살아온 삼룡이가 집안에 들어온 새 주인아씨를 동경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계급사회의 뚜렷한 위계질서를 어기고 벵어리에 난쟁이이기까지 한 삼룡이가 아리따운 주인아씨를 흠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랑시에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서양제국주의의 몰락 이후 세계 전반을 장악한 민주주의가 범하고 있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성산聖山으로 몰려가 농성을 벌인 로마의 평민들에 대한 이야기인 ‘성산사건’을 예로 들어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되는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원초적 소통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B. C 494년 당시 로마의 숙적이었던 볼스키 족과 아이퀴 족의 연합군이 로마로 진격해왔다. 로마 귀족들은 이에 맞서 싸우고자 했으나 군대는 소집되지 않았다. 평민들이 로마의 동북쪽 성산, 몬스사케르 산으로 집결해 본인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농성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설득하고 참전시키기 위해 달변가인 메네니우스 아그리파가 파견되었다. 그는 신체 장기臟器의 우화를 들어 위와 심장, 간 등의 장기에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설득된 평민 군대는 원대로 복귀하게 되었다. 귀족 원로들에게 돌아간 메네니우스가 평민들을 ‘말로 설득’시키는 것에 성공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원로 중 한 명이 답했다고 여겨지는 문장을 인용해왔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랑시에르의 저작을 읽으며 나도항이 그려낸 삼룡이라는 인물을 떠올린 것은 내가 철학과 문학 사이 상응하는 어느 지점에서의 공통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삼룡이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손짓 발짓을 써가며 호소했으나 주인에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이는 그가 단순히 범어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주인과 종이라는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원초적 소통 불가능성이, 그들 사이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사실

“어찌 메네니우스가 ‘그들도 우리처럼 말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갑자기 입이 얼어붙기라도 했는가, 눈이 멀었는가, 아니면 귀가 먹었는가? 또는 정신이 나가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는 어찌하여 그들에게, 그들은 덧없는 소리이고 일종의 울음소리이며 지능의 명시적 표현이 아니라 욕구의 기호에 불과한, 일시적인 말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들은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하게 될 영원한 말을 갖고 있지 못하노라고”

주인집 나오리는 적당한 재력을 가지고 스스로 감투를 쓰고 다니며 양반행세를 했기에 양반과 같은 지위의 인간으로 묘사되었을 뿐이지 실제 그의 신분은 작품 내에 정확히 언급된 적이 없다. 일제강점기, 외세의 영향으로 이미 일그러진 계급 사회 위에 서게 된 무형의 권력과 무형의 지위는 그 안과 바깥의 인간을 만들어내고 정의했다. 분노로 가득 차오른 삼룡이는 자신 삶의 터전이자 겁박의 공간에 불을 놓고 모든 것을 사그라뜨린다.

26

과거 명시적 형태로 존재하던 계급 사회는 이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그리고 개인이 차마 인지할 수 없는 형태로 비가시화되어 여전히 인간들의 삶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수자들 또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사라진 듯, 혹은 정화되기라도 한 듯 완전히 분리 당했다. 맞서 싸우고 깨부숴야 할 대상이 ‘감지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가 되어야 한다. 저항하고 불질러야 할 대상이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함에도 그들은 점점 더 영리하게 기척을 숨기고 그 자취를 감추어간다. 내가 믿기로, 우리 모두는 작가, 기획자, 예술가라는 이름을 입은 이들로 ‘예술’이라는 단초를 들고

우리가 터전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모든 비-장소非場所들에 불을 놓아야 한다. 분노해야 한다. 방화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혐오와 분노의 경계를 허물어뜨려야한다.

## 발제 코멘트 ①

김보경

### 랑시에르의 <불화>

불화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 들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쉬운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원용하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단어 내지 이념이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해서 이 말이 모든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아 소통의 모든 보편자란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 권력의 관용어들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관용어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이해의 문제, 인식의 문제를 권력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모든 이성은 강자의 이성이고, 모든 합리성은 권력의 합리성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이성 내지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7

###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얇게 나타났을 뿐이다.

## 발제 코멘트 ②

박태인

랑시에르의 <불화>와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를 병행해서 읽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이론 세미나에서 제안했던 <타락한 저항>과 상당 부분 유사한 지점을 발견한 것이 있었고, 그 점이 어찌면 지금 예술이 수행해야하는 임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뭣 없는 자들의 뭣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많은 정치적 수사로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 뭣 없는 자들을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다수의 법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법칙을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수의 영역에 대한 치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다. 또는 소수의 커뮤니티가 지속해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까.

28

많은 커뮤니티들이 쉽게 생겨나고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또는 쉽게 워크숍을 열고 또 닫기 때문에 어찌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보지 않은 체 지나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에 대해 고민해보고, 여러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뭣 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점차 비가시적 영역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아카이빙으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방식도 보다 실천적인 단계로 나아가야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예컨대 난민에 대한 여러 예술 작품이나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들에 대한 아카이빙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시점을 경유해서 이제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는 난민에 대한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연락처를

연락처

시파

하영스니다  
썬버

2020.11.01



## 공개모집

산수시장에 위치한 예술공간 ‘산수싸리’에는 지난 6월부터 기획자 네 명과 함께 ‘큐레토-리얼리즘 ver.2’를 함께했습니다. 시각예술기획자 워크숍의 프랙티스, 롱텀 버전의 프로젝트인 ‘큐레토-리얼리즘’은 3개월 동안 기획자들과 싸리가 함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기획을 시도합니다.

“연락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는 다양한 기획과 시도를 현실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도 적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락처를 얻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한편, 저희가 모르는 누군가는 작가나 기획자가 되기 위해 많은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 일까요? 저희는 성공적인 멘토, 선배로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자 합니다.

30

“연락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에서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워크숍입니다. 해당 워크숍에서 참여자와 기획자 모두는 각자만의 이야기로 구성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합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규격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숍 역시 학술 모임이 아니니 편한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연락처를 얻는데 실패하였습니다

20.07.22~20.08.05

모집기간

20.08.08 / 14:00

일정

메이홀 2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29)

장소

김보경

박태인

윤태준

최하얀

그리고 김민지 (산수싸리)



## PART 1. WHO AM I?

Q1. 오늘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Q2. 왜 신청하셨나요?

- 광주 이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예술계의 공간, 인력, 지원의 부족, 선배들의 그들만의 리그 등에 대한 문제점 공유, 광주의 작가들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듣고 싶다
-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
-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연락처를 얻고 싶다
- 학교에서 강요하는 작업스타일에서 벗어난 다양한 사람들의 작업과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다

Q3.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 다들 어떻게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교내 분위기, 생계수단, 아이디어, 지역 현황 등에 관하여)

## PART 2. PORTFOLIO

Q.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해봅시다!

-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 포트폴리오의 좋은 예 함께 보기

## PART 3. SQUIRE

Q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주의 지역성은 무엇인가요?

- 개인적 감정에 얽매인 것들이 지역성 중 하나이지 않은지?
- 작가 작업방식의 논리적, 의도적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
- 사변적 이야기의 해소에서 나아가 작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

Q2. 나 스스로를 작가 혹은 기획자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 예술인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
- 유기적인 태도로 활동의 지속성을 갖는 방법

Q3.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게 있나요?

- 계획 중인 프로젝트를 잘해보고 싶다.
-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선이다.
- 독립출판을 하고 싶다.
- 문화기획이나 홍보 관련된 일을 도전하고 싶다.
- 레지던시 참여작가가 되고 싶다.
- 작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인생이 풍부하길 희망한다.

Q4. 자신의 작품을 글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작가의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텍스트로 정리하는 일의 중요성

Q5. 연연실과 같이, 더 많은 지역 예술가들의 연락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참여소감

### 신청자A

연연실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 좋았다. 그리고 어린 학부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지금의 나는 당장의 해야할 일들을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쳐내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미래를 계획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일정 기간동안 스케줄이 짜여 있고 해야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내가 열정적이든 열정적이지 않든 상태가 좋건 좋지 않건 ‘숙제’들을 기간에 맞추어 완료하기만 하면 일은 진행된다. 그간의 나의 노력은 모두 이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함이지 않았나? 몇 년 후에 더이상 이러한 ‘숙제’들을 부여받지 않게 되는 날들이 오면 자기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며 좀더 주체적으로 작가든 연구자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트폴리오 배치에 관해서, Statement를 제일 첫번째로 넣고, 두 번째로 Moving image들의 화면 캡처와 설치 사진, 세 번째로 CV, 네 번째로 미래 작업 계획을 넣는다. 그리고 VR 포트폴리오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

33

### 신청자B

학교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어서 작업을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 힘들어 할 때 친구의 추천으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 작업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았고, 또 혼자 생각했던 고민들을 작가분들, 기획자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획자와 작가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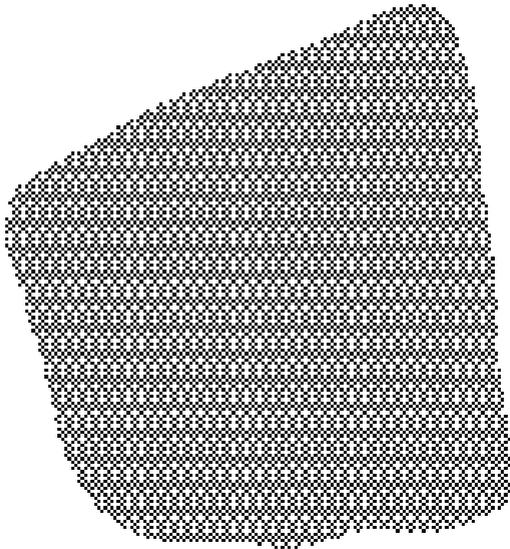


인들기시크스  
222

포프게이  
222

<sup>36</sup> (Undelicious Roleplay)

김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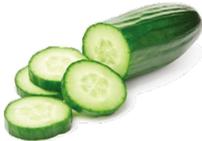


본 워크숍은 싫어하는, 편식하는 재료를 이용해 요리하여 맛있게 먹는 요리 워크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으로 줌(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워크숍이라 직접 함께 음식을 맛보고 그에 대한 후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사실 워크숍의 진짜는 맛있어진 음식 맛보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편식을 할까요?  
 왜 우리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함께 가지며 피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 있을까요?

식감이 별로라서? 냄새가 별로라서? 생긴 모습이 별로라서? 육식은 학습된 식사라고도 합니다. 고기를 먹고나면 몸이 무겁거나 소화하는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쉽게 피로감이 드는 것에서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례입니다. 아이들 편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괜히 싫다고 안먹다가 억지로 먹이면 헛구역질을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과 잘개쪼개 섞어 먹어주면 맛있다고 잘 먹죠.(ㅎ)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무언가를 받아 들이려 할 땐 몸에서도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싫어한다'는 것도 학습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편식하는 재료를 어떻게 '편식'하는 것으로 학습되었을까요?

37

<큐레토-리얼리즘ver.2>의 결과로 진행되는 본 워크숍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와 역할에 대한 기대,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차별하는 것들과 무의식적으로 지우는, 못본척하는 것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메뉴는 사전에 참여 신청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합하게 된 편식하는 음식 재료를 확인 후 그중 선택과 조합을 통해 만들게 됩니다. 워크숍을 통해 요리된 음식들의 레시피는 추후 도록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 언들리셔스 롤플레이(Undelicious Roleplay)

## 편식자 모집

### 🍷 식전 소개 Appetizer

본 워크숍은 싫어하는, 편식하는 재료를 이용해 요리하여 맛있게 먹는 요리 워크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으로 줌(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워크숍이라 직접 함께 음식을 맛보고 그에 대한 후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싫어하는 나의 재료가 맛있어 보여지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먹어볼만 하겠는데 싫다면? 사실 워크숍의 진짜는 맛있어진 음식 맛보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편식을 할까요?

왜 우리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함께 가지며 피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 있을까요?

식감이 별로라서? 냄새가 별로라서? 생긴 모습이 별로라서?

<큐레토-리얼리즘ver.2>의 결과로 진행되는 본 워크숍은 싫어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의무와 역할에 대한 기대, 인식에 대해 요리하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메뉴는 사전에 참여 신청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합하게 된 편식하는 음식 재료를 확인 후 그중 선택과 조합을 통해 만들게 됩니다. 워크숍을 통해 요리 된 음식들의 레시피는 추후 도록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 본 워크숍이 진행 될 줌(zoom)활동은 녹화하여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참여자 동의 를 구하고 외부에 공개됩니다

### 🍷 메인 코스 Main Course

- 일시: 11월 28일 (토), 오후 5시

- 장소: 줌(zoom) 웨비나

- 대상: 편식하는 사전 신청자

\*편식하는 재료를 알려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웨비나 링크가 공유되어 집니다.

### 🍰 디저트 Dessert

- 모집기간: 11월 23일 (월) ~ 11월 25일 (수) 선착순 20명

- 신청: 프로필 링크

- 문의: 김보경 @gyung\_kim\_bo

- 기획: 김보경 Bo Gyung Kim

- 주최/주관: 산수싸리 SansuSsari

- 지원: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 필수항목

5mm

[기본 그래픽 프레임]+

일시중지됨

**Gradient**

Type:

Draw:  Points  Lines

Stop:

Opacity:

Spread:

Navigator Info Actions Links

- Default Actions
  - Opacity 60 (selection)
  - Opacity 40 Screen (selection)
  - Apply Default Style (selecti...
  - Save For Web GIF 64 Dithered
  - Save For Web JPG Medium
  - Save For Web PNG 24
  - Simplify (selection)
  - Simplify Straight (selection)
  - Revert
  - Delete Unused Panel Items
  - Move Dialog (selection)
  - Scale Dialog (selection)
  - Rotate Dialog (selection)

**Character**

Myriad Pro

Regular

12 pt (14.4 pt)

Auto (0)

100% (100%)

0 pt (0°)

English: UK

Bitmap Embedded Black & White Bitm

Untitled-1\* @ 75.65% (CMYK/Pre...

**Para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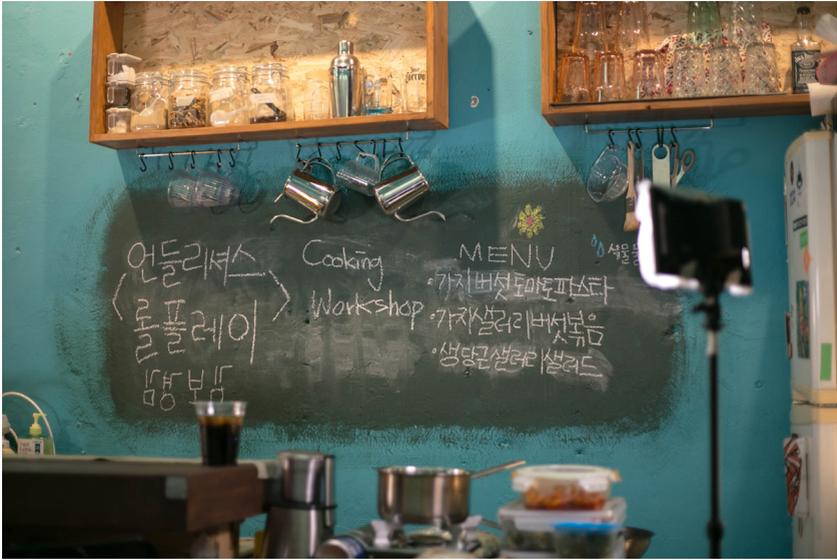
0 pt (0 pt)

0 pt

0 pt (0 pt)

Hyphenate





40



# MENU

1.  파스타

2.  볶음

3.  샐러드

# 가지버섯토마토파스타(🍆🍄🍅파스타)

## 재료

양파(혹은 샬롯 200g) 1개, 마늘 4쪽(+1쪽 가니쉬용), 생 작은 파슬리 1단, 토마토 페이스트,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 파스타면 아무거나

## 토마토페이스트 만들기

1. 양파(샬롯)와 마늘을 편으로 썰어 줍니다.
2. 올리브 오일을 많이 두른 냄비에 양파와 마늘을 넣어줍니다.
3. 계속 저지않고 가장 자리 타는 눌러붙는 부분만 살짝씩 건드려주면서 카라멜 라이징 합니다.
4. 전체적으로 갈색 빛이 돌고, 탄 부분들이 생기면, 가운데를 비워 토마토 페이스트를 크게 세 스키가락 넣어줍니다.
5. 그리고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 줍니다.
6. 유리 락앤락에 넣은 후 식으면 끝.

## 파슬리 가니쉬 만들기

42

1. 가니쉬 용으로 성기게 생 파슬리도 다져준 뒤 마늘 1개를 잘게 다져 한 그릇에 함께 담아줍니다.
2. 소금 찰찰찰찰, 후추 꺠꺠꺠꺠, 섞섞섞 끝

## 가지버섯토마토파스타 만들기

1. 가지와 버섯을 편으로 썰어 줍니다.
2. 파스타 면을 삶고 난 물을 냄비 바닥을 살짝 덮을 만큼 조금 남긴채로 가지와 버섯을 볶습니다.
3. 그리고 면과 만든 토마토페이스트 1~2스푼을 넣고 섞섞섞. 그리고 접시 위에 옮겨 담습니다.
4. 만든 파슬리 가니쉬를 파스타 위에 올리면 끝. (취향에 따라 레몬즙과 엑스트라버진 오일을 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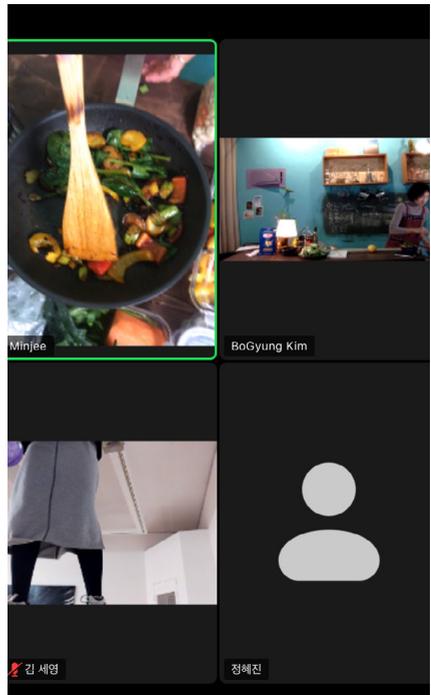


# 가지샐러리버섯볶음 (🍆🥦🍄볶음)

## 재료

가지, 샐러리, 버섯, 각종 야채 그리고 고추기름 소스(로간마)

1. 채소를 볶을 때는 편으로 어슷썰기를 합니다.  
가지와 샐러리를 어슷 썰어 주고, 버섯은 편으로 썰어줍니다.
2. 그리고 좋아하는 재료들을 썰어 넣고, 중국 고추기름 로간마 소스를 넣어 볶아 줍니다. 끝  
(앞에서 만든 파슬리 가니쉬를 올려도 좋습니다.)



# 생당근샐러리샐러드( 🥕🥬 샐러드)

## 재료

당근, 샐러리, 오이, 당귀, 각종 야채

1. 샐러드로 먹을 채소는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줍니다.
2. 소금 찹찹찹. 후추 꺼꺼꺼꺼. 레몬즙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호로록 둘러주면 끝.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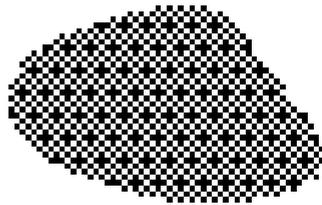


사오아잇느  
2 씨느

사ㅣ켓케의

사ㅣ사ㅇ어ㅣ사거  
○

사오아남기  
2 □



# (1)

2016년도 광주 비엔날레는 <제 8기후대>라는 주제로 예술로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긴 탐구과정을 보였다. 다가올 미래들에 대한 수많은 탐구들에서 많은 부분은 시니컬하고 디스토피아적이었다는 인상이 남아있다. 사실 당시 비엔날레에서 스스로 느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인상은 어느정도 지금 현실과 유사하기도 하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

- 영화 삼진그룹영어토익반 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우리의 문제들이 한발짝도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문명의 운택함에 있다.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이뤄둔 편리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문명은 자신이 구축한 편리함을 영속하기 위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구축한 업적을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하는 선택에 놓였다. 내공을 잔뜩 쌓은 무협지의 고수가 더욱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내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47

다시 2020년으로 돌아와,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내공을 차마 버리지 못한 고수에게 이미 당신의 내공은 사라지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인 셈이다. 공공의 보건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는 처음으로 전 인류에게 닥친 생활의 불편함이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마스크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던져졌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문명이 유지한 질서와 편리함에도 보이지 않는 금이 간 셈이다. 더 이상 편리한 채로 남아있을 수 없어. 너희에게도 곧 이 문제들은 도달하게 될 거야.

## (2)

한편으로 매번 우리에게서는 희미한 기대가 흐르고 있다. 20대, 청년, 90년대생, 밀레니엄 세대. 이 막연하고 희미한 기대는 그래도 제법 절실한 것이어서 점차 촉박하고 긴급해져 간다. 저 윗 세대가 우리에게 가지는 희망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과 달리 청년에 대한 기대감의 정체는 사실 거대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정녕 그들은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기대감이 있을까? 상권이 죽고 모두가 떠난 골목에 많은 돈과 청년을 데려다 두면, 그곳이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사실 무책임함이 아닐까? 자신들의 과오를 수정하는 미래의 세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철을 따라오는 건실한 청년을 기대한 것은 아닐까?

48 차별 금지법이 진행되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 문화 전반에서 삶의 다양한 형태는 인정되지 않고, 결혼을 해야하는 것, 일가를 꾸려야하는 것을 모두가 도달할 삶의 목표로 상정하는 태도는 견고해보인다.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자차를 굴리야만 하는 것 같은. 그 곳에 도달하지 않으면 서로 공감할 수 없는 어떤 허들 같은 것은 계속해서 생겨난다.

그 허들을 넘어 결국 우리가 도달할 지점은 어디일까? 행복일까? 삶이 만약 RPG 게임이라면, 이 지속되는 퀘스트 끝에 우리가 만날 것은 무엇인가? 이 사회가 주창하는 삶의 맹목성은 사실 막연한 희망의 세대를 가사 상태로 내모는 것은 아닌가?

## (3)

다시 불편함으로 돌아가서, 2020년을 불편함의 시대라고 불러 볼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해 바이러스 전염성을 무시하고, 원피스를 입고 국회의사당에 가는 것이 불편하며, 청년들이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 그러나 적의만으로 세상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한 바가 있다.

실없는 농담처럼, 타노스가 옳았는지, 다 죽고 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전복해보기로 한다. 다만 한가지라도 다른 것을 선택해보고, 무대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무대라도 만들어보기로 한다. 다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대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얘기해보기로. 이 살아남은 시체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일한다면서 명함이 없어요?

**아니**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지.

**아니** 하영 씨, (그는 옆에 서있던 나와 같은 나이의 남성을 000큐레이터님이라 불렀다)

**아니** 나는 '장동 콜렉티브'만의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

네 반갑습니다. 독립 큐레이터팀 장동콜렉티브입니다.  
저희는 명함도 색깔도 없습니다. 이년 남짓 활동을 하다  
보니 공부도 더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일을 지속할수록 ‘아니’로 시작되는 말을 꺼내기 힘든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실감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인 것도 같고 ‘여자에’  
둘어서 일하기 때문인 것도 같고, 예-술을 하는 처지라 그런  
것도 같습니다. 셋 모두에 해당하는 ‘90년대생 여성 기획자’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패드를 꺼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  
‘역시 90년대생은 다르다’더니, 미팅을 마칠 때쯤 되니 ‘일  
하려면 명함이 있어야지’라고 하십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나서주니 좋다’더니 이쪽에서 일 하려면 공부를 더 하고  
와야 한답니다. 여성들의 활동이 더 알려지길 바라신다더니  
저는 하영 씨, 옆에 서 있는 또래 남성은 000기획자님,  
00큐레이터님입니다. 정해진 게 없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예술의 장점이라더니 갑자기 장동콜렉티브만의 색깔을  
묻습니다. 도대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3

혼란스러운 날들을 지나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장동콜렉티브는 2019년 겨울, 장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탄생했습니다. 졸업전시를 준비 중이던 김소진과  
이하영이 졸업 이후를 고민하며 ‘예술’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다 결성한 팀입니다. ‘딱 2년만 돈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화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예술의 힘에 공감했습니다. 변화의 끝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고, 가는 길이 재밌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장동콜렉티브의 소갯말 일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독립큐레이터팀 장동콜렉티브는 사회문화 속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한  
예술 실천적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예술 뒤에 따라 붙는 말들 ‘행동/변화/평등/자유와 재미’  
함께 꿈꾸던 일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시를 통해 밀레니얼-Z세대라 불리는 90년대생들의 소통 방식을 이야기했고 (MZ치타텔레:청춘의 소통법, 갤러리 리채, 2019) 또래 예술가들을 홍보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 (YAS!광주 vol.1 극약처방: 우리가 예-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건강했을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지속하며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꿈꾸는 세상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위해, 돈과 권위에 지지 않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옳다’고 말하는 순간이 겹치는, 그래서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 비슷한 사람들과 일을 도모하고 싶었습니다. 소개말에 한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세대 작업자들과 ‘없던 일’과 ‘어떤 일’을 도모한다.’

54

‘옳은 것과 쉬운 것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할 때 옳은 일의 편에 서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90년대생’ ‘여성’ ‘기획자’들이 옳은 일이 무엇이고 왜 옳은지 고민하며, 어떻게 목소리를 내며 이를 지킬 수 있는지 ‘예술’을, 매개로 풀어내려 하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함께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앞서 나가기보다 더디더라도 함께 큰 한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벌이는 중이지만 ‘함께’한다는 건 늘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걸 보니 역시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저희는 없던 일과 어떤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네/ 지금까지 장동콜렉티브였습니다.

## 진정(Calm down)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조혜수(독립기획자)

어느날 나는 내 오래된 집의 벽에 기대 앉아있었다. 나는 이 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야 내가 매일 쓸고 닦으며 소중히 대하고 내 모든 물건을 보관하니까. 여기에는 내 정체성을 대변하는 모든 것들이 있고, 나는 강박적으로 집 안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감추고 이들을 전시한다. 나는 언제나 집을 멀끔해 보이도록 준비해두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내 가치관에 동의하는 손님들과의 티타임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기대 앉아있는 맞은편 벽의 이상하고 불룩한 것이 눈에 걸린 것이었다. 구석에 앉아 등을 맞대고 기대었을 때 발견되는 주름이었다. 방의 중심에서 티타임을 즐길 땐 발견하지 못하던 흔적. 나는 일어서서 그것에 가까이 다가갔다. 손톱크기의 딱딱하고 둥그란 것이 벽지 안에서 도드라져 있었다. 벽지 안쪽에서 시멘트가 흐르다 뭉쳐져 생긴 덩어리였을까? 그러나 그것은 젖꼭지처럼 보였다.

55

몸 밖으로 작게 올라온 고체 덩어리 — 나는 젖가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젖꼭지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차렸다. 나의 집은 도형이 된 젖꼭지를 갖고 있었다. 젖이 한 번도 돈 적이 없는 젖, 돌 일이 없어보이는 젖, 푸른 빛의 젖, 드러나도 나서지 않으며 나타나도 발견되지 않는 젖. 그런데 집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진정해(Calm down). 진정 네가 원하는 게 뭐야? (What do you REALLY want?)

내가 기획한 전시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주 해석되곤 한다. 내가 주로 여성작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자주 다루기 때문이다. 내가 전시를 기획할 때 단 한 가지 유의하는 점이 있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형식적 전통을 간혹 배신하거나 그곳에서 한 발 물러날 것. 이는 혐오와 반지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이 고정된 의미에서의 전통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다루는 작품들은 간혹 미학적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고정된 의미만을 반복 생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들의

답은 대체로 정해져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다른 모순적인 것들이 끼어드는 것을 겁낸다. 또 다른 타자를 정치적 올바름의 세계에 편입시키고 계속해서 신화를 만드는 일은 학문을 살찌우고 전통을 구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선의 전략은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보다 크고, 올바른 사람들 역시 가끔 이 위선에 기대다. 대상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를 고정된 원칙에 끼워맞춰 학문적 전통을 살찌우는 것, 옳은 것을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것. 나는 이것은 일종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마이너리티와 관련된 작품의 딜레마는 증명된,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지는,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정치적 올바름의 역사적 맥락에서 타당한 — 전통에 성실하게 복종할 때마다, 작가나 기획자의 도덕적 성취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다. PC를 온몸으로 표현해내면 해낼수록, 대상보다 올바름이 부각되고 작가나 기획자는 일종의 정의의 사도가 된다. 때때로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며 얼마나 거기에 동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한다. 물론 그러한 작업 역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예술가나 기획자는 고정된 고통과 슬픔을 다루기보다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 설탕 시럽이 되는 장소에 대해 상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선 오랫동안 묻어온 사죄의 말들이 설탕을 몸에 묻히고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슬픔의 맛을 오래 음미한다.

56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술가나 기획자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때에 (나를 포함한) 누군가들은 타자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가끔 타자와의 구분이 지금 당장에 사라지길 원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경계하게 된다. 그것은 휘장처럼 휘감은 수식어들을 풀어 머리맡에 두고 감상하기 위한 무덤을 파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PC라는 이름을 가진 안식처이며, 좀비가 되어서도 가끔 들어가 숨기 위한 장소다. 무덤을 파내기 전의 땅과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진짜 원하던 것이 이런 장소였나?

이런 일을 상상해본다. 어떤 나라는 몇 번이나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황야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고, 나는 거기에 잠깐 발 닿은 적이 있다. 나는 그곳을 보았다는 사실에 거만해하면서, 어느날 이 땅에 와 있는 그 나라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나는 기뻐하며 오래 전 여행을 갔다가 남겨온 돈들을 꺼내 보여준다. 사람들은 신비롭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는 물끄러미 내 손을 바라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지폐는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내 손에는 그 나라가 멈춰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다.

젓가슴이 있는 벽에 손을 대면 미세한 떨림이 전해온다. 그것은 땅 속의 땅들이 부딪히는 진동일 수도, 너머의 누군가가 보내는 전언, 혹은 심장소리 일 수도 있다. 가슴을 쓸어내듯이 벽을 쓰다듬으면…… 그렇게, 놀랍게도 아주 잠시, 집은 화려한 무덤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 아주 순간일 뿐이지만. 나는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정치적 올바름과 함께.

[PC의 내부에서 PC를 고민하는 동안의 더욱 현실적인 부록]

여성, 90년대생, 기획자 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지 한달 째, 조혜수는 차일피일 글쓰기를 미루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모두 조혜수를 설명하는 단어였는데, 감이라서 감맛이 나는데 왜 감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조혜수는 이 청탁에 응하기 위해, 총 3번의 전시를 기획하고 온갖 스타디에 참여하는 신진 독립기획자로서,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제가 하는 짓거리들(전시, 모임 등)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2020.8.16-17 : 24시간동안 설문

이는 낚시성 질문으로, 사실은 단지 답변자의 성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본 200여명 중 37명 답변 : 여 32 남5 (여성 88%, 남성 13%)

인스타그램 팔로워 성비 : 전체 1,167명 중 여60% 남40%

(출처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인사이트)

팔로워 전체 1,167명(8월 22일 기준) 중 답변 비율 : 여성 3%, 남성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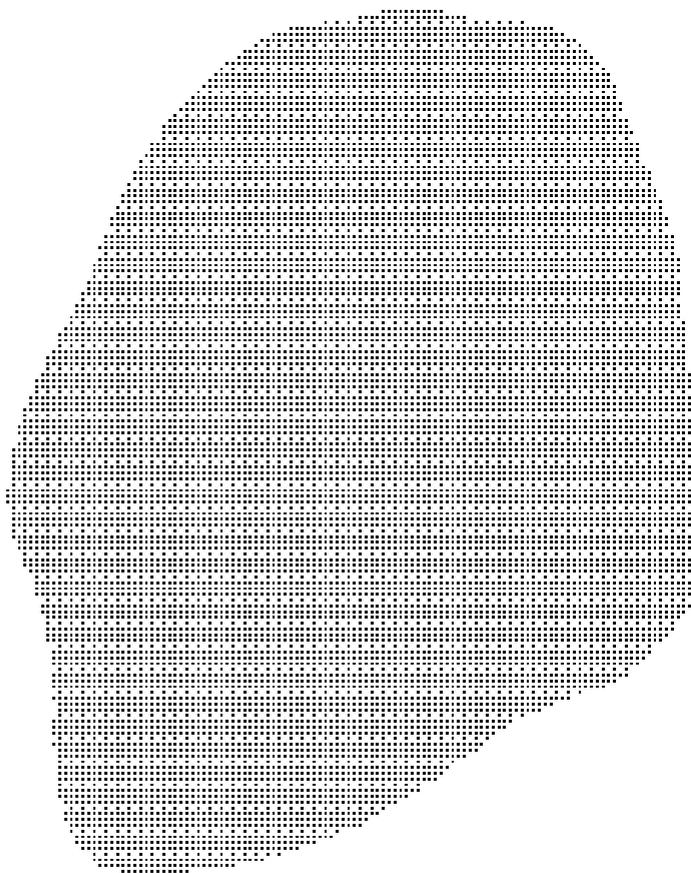
결론, 사람들은 조혜수가 뭘하든 별로 관심이 없다.

남성이라면 더 특별히 그렇다.

트 오 비 지 고  
ㅁ ㄱ ㅂ

드 오 거 가 사 기  
ㄱ

윤태준



# 큐레토리얼 텍스트

동시대 대부분의 활동은 웹에 업로드되고 타인에게 공유된다. 웹에 접속 가능한 장치의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실어 보낸다. 발신된 데이터는 누군가에게 수신되고, 어딘가에 캐시(Cache)로 저장되고, 다시 참조되어 재생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웹 사용자들에게 데이터가 흐르는 일련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는 물리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스크린에 표상되는 이미지(Image) 움직임에 집중한다. 이미지를 조작하는 신체활동은 현실과 웹 데이터와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신체 활동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확장된 신체 활동을 통해 눈동자를 바쁘게 굴리다 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습득 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진다.

스크린에 재현되는 이미지는 다양한 정보를 담는 바구니와 같다. 바구니에 일련의 정보를 실어 전송하고 수신하고 변형시킨다. 이미지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사진으로 표상되지만, 사진(이제는 고전적인)이라는 틀을 벗고 변형, 왜곡, 축소, 확대, 오염, 삭제, 재생산된다. 스크린에서 재현되는 현실은 이미지로 변형되어 제시된다. 그러나 이미지로 재현된 현실은 무엇도 온전하게 재현하지 못하며, 명정한 현실을 표상하지도 않는다.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오는 세 명의 작가는 포착하는 사진술에서 탈피하여, 피사체를 직접 제작하거나 이미지를 재조직하여 작업을 생산한다. 그럴듯한 대상이나 풍경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사진의 표면 위에 올려놓을 정보들을 취합하고 재생산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진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미지로 생산된다. 작업은 사진의 표면에 올려진 대상과 나의 무언가를 의표 하는 감정을 지시하지도 않고, 사진의 진실성, 객관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실에 호소하지도 않는다. 이미지의 재생산, 왜곡, 삭제의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세계와의 좁은 틈을 남길 뿐이다. 좁은 틈에서 비집고 흘러나오는 어떠한 것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그것의 매끈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두께는 일정치 않을 것이다.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그것의 여러 조각을 더듬어 찾아내고 재조합하고, 특정한 모양으로 재조직하여 작업으로 생산한다. 스크린의 이미지와 현실의 명정한 물성으로 빚어낸 여러 부산물을 통해 동시대를 더듬는다. 밝게 빛나는 스크린의 틈을 찢고 흘러나온 무엇(Thing)을 통해 근미래의 어둡거나 밝은 혹은 투명한 것을 단단한 땅 위에 올려놓는다.

#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2020. 8. 13

목요일

13:00 ~ 19:00

일요일

28

바림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1-173층

임성준 정찬민 홍영주

신기루이 미지남터러지물성잡고  
 오르기진실성명징함테크놀로지  
 웹사용자데이터터성감각과인지사  
 진확장된신체화트제브이다발변  
 형표상공간제  
 공유복제  
 표면표면적인속성재생산오브제  
 재조직레퍼런스참조매끈함성비  
 가시적인속성무해합스크린투명  
 합단단한땅깊이레이어포착하는  
 사진슬가상세계현실세계땅좁은  
 틈통시대신기루이미지동시대낭  
 때러지물성잡고오르기진실성명  
 징함테크놀로지웹사용자데이터

## 아티스트 토크

2020. 08. 21

17:00 ~ 18:00

포착하는 사진에서 벗어나 작업하기

일시

시간

주제

60

김보경

박대연

윤태순

최아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1-173층

## 임성준

1994년 출생으로 이미지에서 출발한 오브제 작업을 하고 있다.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흐릿해진 오늘날의 세계에서 경계에 걸쳐진 상태로 재현된 이미지들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이러한 과정을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희미해진 경계라는 빈틈을 벌리고 들어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의 형태로 생산한다.

## 정찬민

1991년생으로 사진과 설치 작업해오고 있다. 특히, 사진이 만들어질때 거치는 기계적인 프로세스, 물리적인 환경, 이미지 안팎의 시각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사진의 평면적인 속성과 입체감, 공간감 재현효과에 대해 탐구하며 작업으로 제시하고있다.

61

## 홍영주

1994년생으로 사진과 설치에 기반한 작업을 하고 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주변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감각의 인지와 여과 과정에 대해 탐구한다. 비가시적인 감각의 인지를 이미지로 드러내고 이를 물체의 감각적 속성과 연결하며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전시정보

---

참여작가	임성준, 정찬민, 홍영주
기획	윤태준
협력	산수싸리, 바람,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전시기간	2020.08.13 ~ 28 월, 화, 수 휴관 목 ~ 일 13:00 ~ 19:00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포착하는 사진에서 벗어나 작업하기 08.21 (17:00 ~ 19:00)
전시위치	바림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1-17 3층)

---

62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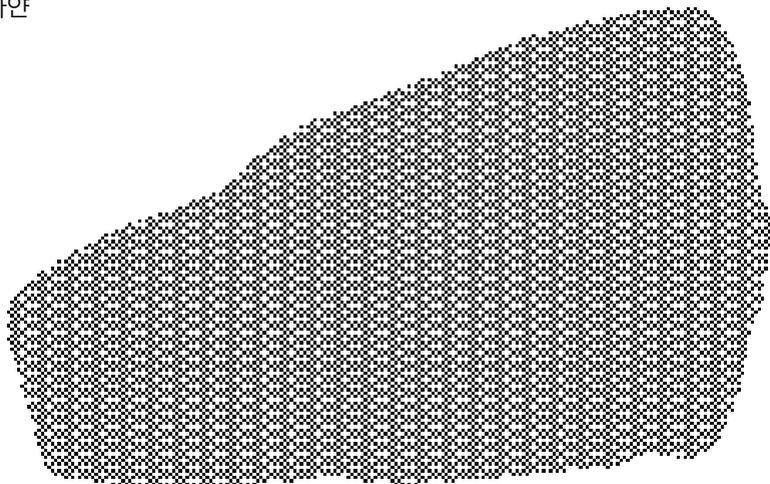
1950년대

○ 아프게

66

؛ 나의 할머니

최하얀



## 나의 할머니 : 정현남

나는 맛벌이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초등학교가 방학에 접어들면 작은 오빠와 담양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와 근 두세 달을 함께 살아야 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는 내가 자라 초등학생이 될 때 까지 자택이 위치한 담양에서 혼자 사셨다. 담양 깊숙한 곳 작은 마을의 시골집에서 우리는 그녀가 세월을 통해 체득한 소소한 삶의 지혜들을 배우며 무료한 방학을 함께 했다. 창고가 딸린 옛날식 양옥에 지내면서 초등생의 거의 모든 방학들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건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녀가 어떤 젊은 시기를 보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해 본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할머니는 이미 나의 할머니로, 이미 늙은 여인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젊은 시절 어떤 꿈과 희망을 품고 치열한 삶을 살아온 젊은이였다거나, 정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성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은 나에게 거의 불가능했다.

67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담양 시골집에 가야 할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세 남매를 길러내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야 했던 부모님은 명절에도 큰집을 방문하지 못했다. 그렇게 담양의 한구석을 지키고 섰던 구식양옥과 손등에 자글자글한 할머니의 주름살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년의 추억이라는 미명美名으로 그저 머릿속에 박제되어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와보라며 불려간 교무실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왔으니 어서 가방을 싸고 집으로 가보라는 것이다. 어둑어둑 해가 저문 등갓길을 홀로 거꾸로 밟아 가면서 머릿속으로는 오래간 왕래가 없던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보려 했다. ‘양말을 벗을 때는 짝을 맞춰 꿰어놓아야지,’ 하고 혼을 내키던 할머니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옥빛이 도는 한복을 입고 차가운 스테인리스 판 위에 누운 할머니는 얼마 만에 보는 모습인지 가늠하기조차 힘이 들 만큼 과거의 모습을 잃은 채였다. 영정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만이 한때 이 땅 위에 정현남이라고 하는 인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미미하게 밝혀줄 뿐이었다. 처음 겪어보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나는 할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뿐 아니라 연민이고 감정이고 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소진되어있던 터라 할머니의 죽음을 우리의 관계만큼 가깝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때 그녀의 죽음은 나의 잔잔하고 치열한 일상에 툭 하고 떨어진 별개 된 사건처럼 느껴졌다. 고모가 할머니의 관 앞에 엎어지더니 자식들이 옷 한 벌 못 해줄까 봐서 수의를 스스로 사 입고 갔느냐, 하며 크게 울었다. 그제야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된 겨울 어느 날, 나는 광주에서 태어난 아버지와 함께 통화하며 광주의 대안공간 뽕뽕브릿지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 전남방직에서 일했던 여공들이 묵었던 숙소를 2015년에 개조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그는 짐짓 반가운 듯, “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전남방직에서 근무하던 여공이었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1950년대 아프레걸: 나의 할머니]

68 전시기획은 바로 이 지점, 내 아버지와와의 전화 한 통에서 출발한다. 내 초등의 유년을 그녀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건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그녀가 ‘할머니’이기 이전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었다.

정현남이 과거 계약 노동을 수행한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손녀인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의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해 가정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 수차례 물어본 일이 있었으나 할머니라는 인간이 대한민국 근현대 사회의 노동자로서 본인이 수행한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는 직업여성일 수 있었다는 가능성은 그녀의 젊은 날이 품었던 수많은 가능성들과 함께 이미 내 안에서 잠정적으로 삭제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단순히 나의 ‘할머니’였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 그녀 혹은 그녀들의 노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삭제/묵언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할머니가 노동을 수행한 1950년대 여성들에게는 ‘아프레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는 196~70년대 대학에 가지 못한 여성공장노동자를 낮잡아 부르던 ‘공순이’ 용법과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며 개화기부터 이어져

오던 ‘신여성’ 담론과 그 결을 함께 한다. ‘신여성’이 일제강점기 여성교육운동을 통해 ‘집 밖을 나선 여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조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였다면 ‘아프레겔’은 1950년대 미국식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벗어난 여성들을 경멸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내가 1950년대 당시 양공주, 유한부인, 여대생과 여성노동자 모두를 포괄하는 ‘아프레겔’ 담론 안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바로 이 단어가 무력화하려 하는 여성 노동의 의의와 당시 여성의 노동을 대했던 사회의 역설적 태도에 있다.

나의 할머니 정현남은 1937년 전남 광산군 송정동(현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사남매 중 막내딸로 출생하여 돌이 지나기 전 아버지를 잃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17세의 어린 나이에 전남방직공장에 취직하여 혼인하기 전까지 약 9년간 여성공장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나의 할머니는 사회에 의해 ‘아프레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1950년대 각종 매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아프레’ ‘아프레하다’ 등의 용어는 세계대전 이후 전후파를 가리키는 프랑스어 ‘아프레겔(apres-guerre)’에서 온 말로, 여기서 ‘겔’이 ‘걸(girl)’로 대체된 ‘아프레겔’은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전후의 새로운 여성상을 지칭한다. 당시 아프레겔은 저널리즘 용어의 특성상 경계가 명확히 확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전후에 등장한 여성들의 새로움을 일러 폭넓게 지칭하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대생부터 직업을 가진 여성과 유한마담, 양공주까지 다양한 군의 여성들이 아프레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있었던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삼백산업 하에 국가주력사업으로 대두되었던 면방직 산업은 전쟁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빈곤계층과 전쟁미망인들의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이는 처음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당시 여성들이 전남방직에 입사한다는 것은 전후 시기의 혼란 속 미국풍의 유행, 전통적 유교 가치관이 혼재한 사회에서 전쟁 직후 무력화된 가장의 자리를 여성 가족 구성원이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혼 전 소일거리로 취급되던 여성의 육체노동은 재화로 환원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을 부양할 소비주체 여성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채 밖으로 나선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뉜다. 여성잡지와 신문으로 대변되는 당대 미디어는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고 자신을 꾸미기 시작한 여성들을 미국식 문화와 자유주의의 향락에 젖은 아프레겔로 지칭하며 이들을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필요로 했다. 나는 이러한 시선들이 내 할머니 혹은 ‘할머니들’의 역사를 부정했다고 생각한다.

공장 유니폼을 입고 대학생들과 자유연애를 하는 공장가시네, 개인적 타락에 빠져 미군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여겨졌던 양공주, 낮에는 공부하러 대학 다니고 저녁에는 술집에 나가 몸을 파는 여대생의 이미지, 장바구니를 들고 댄스홀을 다니며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몰렸던 유한마담까지. 나의 개인사 안에 암묵적으로 삭제되었던 할머니의 노동역사는 사실 이렇게 여성노동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던 과거사, 더 정확히는 당대 미디어의 허구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후 시기 정권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바탕으로 한 삼백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삼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공장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여성 노동이 사실상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지/지탱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태도는 상당히 역설적이다.

# 1950년대 아프레걸 : 나의 할머니

2020.9.22 \_\_\_\_\_ 27  
화요일 13:00 ~ 19:00 일요일

뽕뽕브릿지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286번길 14-36 2층 양채은 최하얀

언니모두시 집을가고가정을꾸린  
상황에서후자남은할머니는집안  
유일한노동자전남방직에서일해  
법은정속하여성의정조만을보호  
정절로대표되는여성상의파괴자  
민족이계승할과거를훼손하는자  
브레지어슈미즈코르셋테티코트  
남성의부도주부의매력상실원인  
마스카라부라자콜셋스카트등  
야만인이나아푸리카의귀걸이를  
걸치고스마트하다는현대여성들  
양풍모방속물적연애성개방성  
기괴한타입의최신여성아프레걸



71

# 공간적 배경 : 뽕뽕브릿지

따라서 내가 [1950년대 아프레걸 : 나의 할머니]의 전시 공간으로 문화공간 뽕뽕브릿지를 생각하게 된 것은 가히 필연적이었다. 뽕뽕브릿지가 위치한 발산마을은 일제 침략을 피해 모여든 피난민들이 세운 판자촌으로 마을의 역사를 시작해 196-70년대 강 건너 임동에 위치한 전남방직공장에서 근무하는 여공들이 고향을 떠나와 거주하게 되면서 마을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당시 마을에는 여공들의 출퇴근을 위해 방직공장과 발산마을을 잇는 다리가 하나 지어졌다. 여공들은 구멍이 송송 뚫린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 매일 일터로 나갔고 월급날이면 고기 한 근을 끊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재 뽕뽕브릿지 건물의 2층은 한 때 여공들이 묵는 숙소로 사용되었는데, 원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비되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공간 뽕뽕브릿지의 이름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72

나는 내 할머니 정현남의 개인적 노동사에서 기인한 ‘1950년대 여성노동의 가치와 아프레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뽕뽕브릿지를 방문했다. 그리고 과거 여공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어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2층 전시공간에 사람이 머무는 방의 형태와 나무로 된 문틀 4개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주제에 맞는 전시 공간 활용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기존에 있는 나무 문틀을 사회의 ‘프레임’ 혹은 가게의 ‘쇼윈도’로 치환해 아프레걸 여성 군상에 속하는 여성공장노동자, 양공주, 유한마담, 여대생의 허구적인 이미지를 배치하고, 이를 내 할머니의 개인적 생애사와 대비함으로써 ‘아프레걸’이라고 하는 허구적 이미지가 차마 다 포괄할 수 없는 여성들의 개인적 생애사에 대해 밝히는 것을 전시 목표로 삼았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그룹MOIZ의 양채은이 전시 시노그라피와 오브제 제작 및 설치를 맡아주었다.

# 전시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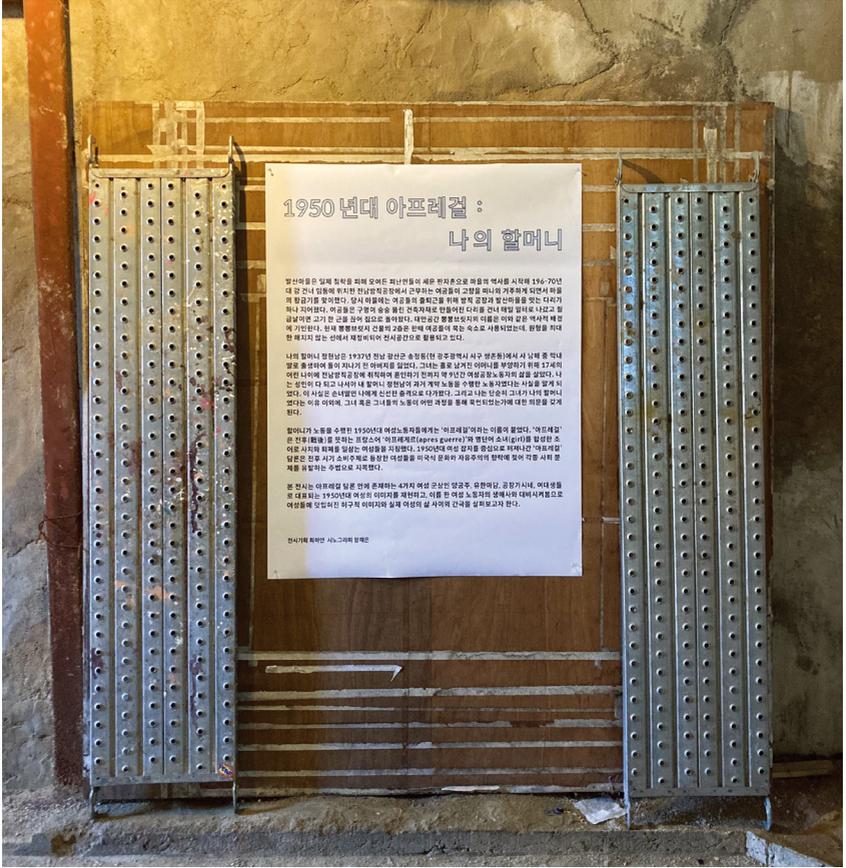
앞선 맥락을 통해 내 할머니 정현남의 개인 생애사를 전시기획을 위한 단초로 가져올 때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① 그녀가 당시 전남방직의 여공으로서 수행했던 개인적 노동사를 한국근현대사의 흐름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전후 복구 시기 여성공장노동의 역사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성 서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삭제되었는지를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② 당시 여성잡지와 신문 등의 미디어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던 ‘아프레걸’ 담론을 통해 여성을 지칭하는 혐오용법들이 어떻게 한국근현대사를 따라 여성혐오담론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73

전통적 가정을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을 공포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와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이중적 행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다만 그 형태와 용법을 바꾸어 우리 주변에 산재해왔다. 이런 여성혐오담론은 당대의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 및 확산되었고 현재까지 그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개화기의 모던걸, 1950년대의 아프레걸과 같은 담론은 2020년의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으며 오늘날의 된장녀, 여대생 용법을 통해 개인의 삶을 단순화하고 그 혐오의 형태를 세분 및 치밀화 함으로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 1950년대 아프리카질 : 나의 할머니

할머니들은 일제 잔치를 피해 오려든 피난민들과 세운 부락촌으로 귀향한 여성을 시정해 1946-70년 대 경 건너 일제에 부처한 의상정리공장에서 근무하는 여공들이 고발물이나 거주물이나 의상정리공장의 일꾼들을 잡았었다. 당시 해방에는 의상정리공장에서 근무한 부락 촌장 공장인 정현이들을 죽는 다리가 되어 갔었다. 의상정리 공장도 중공군 인민군에 의해 폐쇄된 뒤로 다시 독립이후 나갔고 일 끝이후에 고기 한 근을 같이 잡으려고 돌아왔다. 대한민국 중공부대의 이름을 아려 죽는 역사적 계급 에 기인한다. 남북 평화협약이 체결된 후부터 이들을 죽는 계급으로 사용되고있다. 평화를 위해 한 해되지 않는 안에서 재건비자가 전사공민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의 할머니 정현이는 1937년 전남 남안군 용정면(현 광주광역시 서구 모은동)에서 사 남해 중 학내 정을 중공의 몸이 사나고 한 여자를 잡았다. 그녀는 물론 남해군 여인부를 받았다가 뒤에 17차 인민 나이에 전남정리공장에 한여자에 한민당이 근무한 여공인 이복을 잡은 후로부터 일로 잡았다. 나 는 장모인 다 하고 나사아 내 할머니 정현이가 과거 정현 노동을 수반한 후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이 사실을 전해받은 나이에 남안군 용정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남안군 고고사내 할머니 정현이는 이유 뒤에서, 그녀 혹은 그녀들의 노동이 어떤 평생을 통해 꼭 지켜냈다는가해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가 노동을 수반한 1950년대 여공노동을해하는 '이복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복제'란 조국 해방을 공정한 정현수의 '이복제'란(Jerry's Law)을 말한다. 이복제(이복제)를 일컫는 오 이로 사자의 해제를 일컫는 여성들을 지칭한다. 1950년대 여성 잡기를 중심으로 제작한 '이복제' 일꾼은 중공 사기 소위주조로 불린 여성들을 부처지 공화국 여공들의 형태로 찾아 각종 사회 제를 유물하는 수법으로 지칭했다.

본 전시는 아프리카질 일본 안제 존재하는 4가지 여성 근상인 일꾼주, 유한역사, 공장사내, 여대들 등 대표되는 1950년대 여성지 여리자를 재현하고, 이를 한 여공 노동자의 생애사와 대에서계적으로 여성들에게도 알려진 부고자 여리자에 대해 여공의 삶 사적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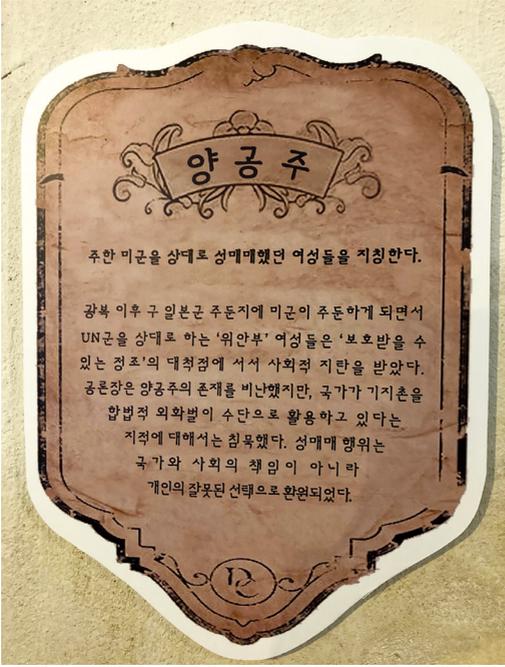
전시/기획: 최미연, 이은,그림:최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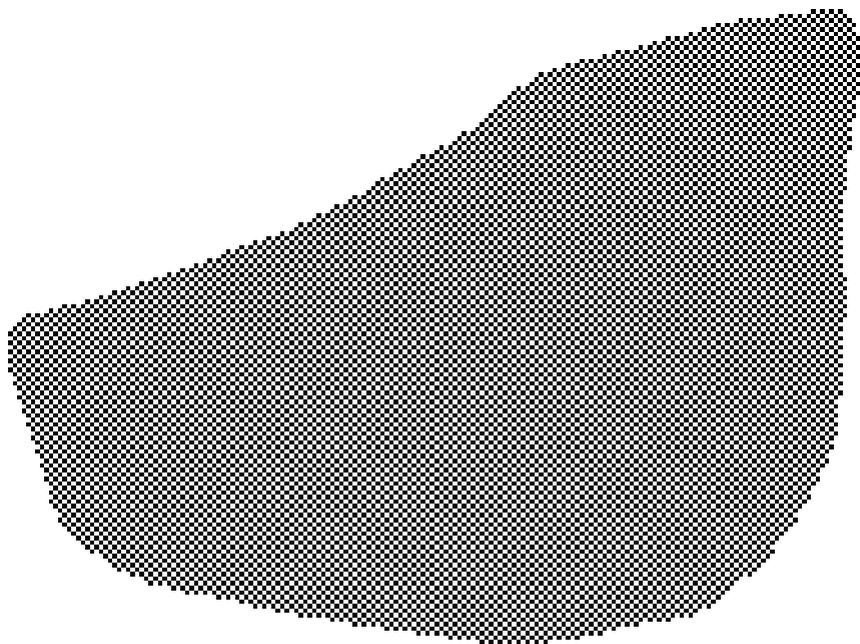
ПБ





프로그램

참여 사회



야심찬 연구 주제와 구체적인 3개월 계획을 함께 포함하여 본 프로젝트에 지원 했던 것과 달리, 강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있던 주제에 현자타입가 오면서 모든 고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도 선뜻 다시 잡기 쉽지 않던 시점에서 다른 기획자들과 함께 시작하게 된 <큐레토-리얼리즘ver.2>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과정 중 느낀 사회에서 기획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획보단 프로그래밍에 더 관심이 있어 워크숍 형태를 꼭 해보고 싶던 차에 ‘큐레이터’란 특정 능력치를 갖고 있어야하고, 당연히 특정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하며 ‘꼭 그래야만 큐레이터인걸까?’라는 의문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레이터를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큐레이터라는 ‘업’에서 당연시되는 역할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RPG게임 메이플스토리처럼 특정 민첩 능력을 높이면 ‘도적’, 마력이 높으면 ‘마법사’로 키우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말이죠.

종종 작가의 의무, 기획자의 의무와 같은 말들을 듣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특정 능력이 있어야하며 특정 의무를 갖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해,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혹은 알고 있었을지도)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지면서 은근하게도 감정(거부감과 같은)을 동반하는 생각인 듯 합니다.

우린 ‘업’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기대를 갖고 있던 것일까요? 정말 그 업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는 안되는 능력이면서 없으면 절대 그 업을 가져서는 안되는 걸까요? 능력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가지 더 드는 생각은, 왜 우린 거부감, 혹은 불편함(불인정일 수도)이라는 감정이 드는 걸까요? 그렇게 <큐레토-리얼리즘ver.2>에서 수많은 자아성찰적 질문들을 형성하고 아이디얼리즘에 가까워진 듯 합니다.



몇 년 전 큐레이터란 무엇인지, 큐레이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적이 있었다. 돌아보니 그것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부류의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의 전반을 예술이 흡수하기 시작한 오늘에서 예술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게 만드는 일이 된 것 처럼 큐레이터란 또는 큐레이팅이란 무엇인지 질문하는 일 역시 큐레이터에 대한 중요한 지점들에 도달하기 전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신발과 노래와 음식을 선별하는 것도 큐레이팅이 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큐레이터는 미술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작가가 그렇듯이. 그럼으로 큐레이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은 이렇게 내재화 할 수도 있겠다. 나 스스로를 큐레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2018년 바림에서 진행된 큐레토리얼 레지던시 <큐레이터를 부르는 법>은 위와 같은 고민을 담은 레지던시였다.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처럼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가 시도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 큐레토리얼 레지던시의 결과 발표가 <큐레이터를 부르는 법>이 된 것은 각 참여자 모두가 스스로를 큐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을 상상해보거나, 스스로를 큐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의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큐레이팅 함으로서 단일한 하나의 큐레이팅이란 무엇인지 정의내릴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다음의 레지던시에 나는 콜렉티브로 참여하여 ‘사회인류학자로서의 큐레이터’ 라는 소재목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프로젝트는 ‘택시’에 대한 것으로 택시를 한국 사회를 조명할 수 있는 매체로 인식하고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을 연결 시키는 시도를 해봤다. 택시 기사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내용과 여러 문제들을 켜켜이 쌓아서 택시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시도해봤다.

이후 몇년이 흐르고, 여전히 나는 스스로를 한명의 큐레이터라고 정의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작가가 아닐 뿐이다. 다만 지난 바림의 레지던시 이후로 스스로가 가진 나름의 큐레이터 상은 말할 수 있다. 나를 둘러싼 환경 혹은 사회에서 발견되는 지점들을 포착하고 이를 연결하는 것. 그것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어떠한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병치시킴으로서 다시 읽어 볼 수 있는 맥락을 찾는 것.

이것이 앞서 말한 큐레이터란 무엇인지? 에 대한 질문 보다 더욱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나름의 큐레이팅을 하는 세상에서 큐레이터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위해 가져야하는 것은 큐레이팅을 대하는 태도다. 큐레이터로서 큐레이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지점에서 큐레이팅을 시도하는가?

82

산수싸리의 프로그램 <큐레토-리얼리즘 ver.2>에 처음 지원하면서, 큐레토리얼과 리얼리즘의 합성어인 ‘큐레토-리얼리즘’이 산수싸리라는 공간 자체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광주 비엔날레와 같은 막강한 큐레이터의 힘으로 거대한 담론을 논의하는 광주라는 도시에서 산수동, 산수시장 안에 위치한 대안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큐레이터로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도들은 머나먼 담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획을 시도해보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 공간에 모인 작은 공동체가 하나의 Microhabitat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의 작은 시도들이 내년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연락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를 통해 만난 젊은 작가들과의 비평 프로그램이 될지, 큐레토-리얼리즘에 참여한 두 기획자의 작당모의가 성공해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지. 스스로에게도 큐레이터로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프로그램이었기에,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해볼지도 모르겠다.

미술은 사물과 세계를 명징한 눈으로 바라보고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고 재단하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로서 시각적 결과물을 생산하고, 그것만의 시선으로 주제를 조직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다양한 사물, 현상, 관계 등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며 새로운 무엇인가로 재창조하는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낸다. 일종의 시각적인 결과를 위한 논리적인 연상이랄까. 그렇다면 큐레이팅은 무엇인가. 기획자는 무엇을 하는가. 크고 작은 전시를 진행하며, 큐레이터들과 카운터 파트너로서 마주했었다. 좋은 기획과 큐레이팅을 통해 어긋난 부분을 맞춰가기도 하고, 작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큐레이터로서,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전시를 준비하며 사진 매체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을 제시했다. 현상을 명징하게 표현하는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거나 변형시키는 작업들에 대해서 작품으로 제시했다. 전시를 준비하며, 작가로서 등장하고 싶은 욕심은 최대한 제거하고 작가들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다만, 일회적인 전시로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고 미진했다. 그들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랐다.

큐레이팅은 무엇을 하는가. 미술이라는 시각적 언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의 언어가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의 층위로 읽힌다. 그럼에도 작품과 큐레이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개인적 소회所懷 : 구르는 돌과 같이

최하안

정말로 바쁘게 보낸 2020년이였다. 그렇게 회상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겨울, 나는 미술학과 이론전공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였다. 미술이론 전공자의 삶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좌로 우로 마구 추돌하며 길길이 날뛰는 인생을 꿈꿨다. 대단한 기획을 실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시끄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4년의 학과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나의 얼굴에는 익숙한 작은 세계를 떠나오는 이의 산뜻한 긴장감과 문에 남은 손자국만큼이나 희미한 기대, 그리고 하루살이의 날갯짓 같은 두려움 조금이 묻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2018년 1월, 미술관에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희망하는 업무와 거리가 먼 일들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나를 직업적 괴리감에 빠져들게 했다. 주변의 치열한 인생들을 보면서 우울감에 젖어들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은 갔다.

우리 세대는 분명 이전의 세대와는 참 다른 삶을 살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버는 돈을 다 쏟아 부어도 도저히 이자가 붙지 않는 예·적금과, 낯선 질병이 창궐한 무형의 디스토피아 속을 헤쳐가고 있다. 그 안에서 ‘대학(원) 졸업자’로 부유하는 우리 세대는 어쩌면 너무나 필연적으로, 불안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이만큼 먹었으면 그리 적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인 것 같진 않고, 실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감에도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궁핍하다. 그러던 중 올해 10월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된 한 대담에서 임신 중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뜨개질 작업을 시작했다는 작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물론 힘들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쁘고, 쓸 새 없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요. 이제 다들 알잖아요.”

이 바쁜 1년이 갔다. 큐레토-리얼리즘 Ver.2를 통해 나는 [1950년대 아프레겔: 나의 할머니]라는 기획을 실현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온전한 나의 생각, 나의 시간을 들여 꾸려본 전시였다. 또,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올해의 활동 안에서 막연하게나마 내 지향의 다음 단계로 가는 아주 작은 물꼬를 튼 것 같은 희망을 보는 것은, 비록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태동해야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이 작은 세계를 또 하나 더 깨고, 바깥으로 나가야한다. 그렇게 굴러지다보면. 언젠가 어딘가에는 닿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품으면서. 계속해서 굴러지고 있다. 또 다시 굴러간다.

발행일

2020.12.20

기획

산수싸리

참여 기획자

김보경, 박태인, 윤태준, 최하얀

도움주신 분들

임성준, 정찬민, 홍영주, 양채은,

이목화, 조혜수, 장동골렉티브

디자인

사각프레스

인쇄

종로인쇄

이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